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10명이 서명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습니다.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써 국가 간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 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과의 오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번번이 사실왜곡과 거부로 일관해왔습니다.
- 그럼에도 또 다시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양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침략으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에 단호히 대처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